

2017년 7월 7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PBR 1배라는 잣대

• 중화권 증시 동향

중국증시, V자 반등을 보이며 상승세 지속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세진중공업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KG ETS 외 5개 종목

• 산업분석

은행, 정유, 철강·비철금속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략 총괄 | 노근환 ☎ 3276-6226
투자 전략 | 박소연 ☎ 3276-6176
시황 분석 | 김대준 ☎ 3276-6247
계량 분석 | 안혁 ☎ 3276-6272
파생 / 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해외주식 | 백찬규 ☎ 3276-6280
중국시장 | 최설화 ☎ 3276-6274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글로벌기업 | 정희석 ☎ 3276-6277
자산배분전략 | 정현중 ☎ 3276-6191
경제 분석 | 박정우 ☎ 3276-6229
채권 분석 | 오창섭 ☎ 3276-6174
해외채권 | 박승진 ☎ 3276-6560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30(금)	7/3(월)	7/4(화)	7/5(수)	7/6(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91.79	2,394.48	2,380.52	2,388.35	2,387.81	
	등락폭	-3.87	2.69	-13.96	7.83	-0.54	
	등락종목	상승(상한)	419(0)	336(1)	216(1)	420(0)	379(0)
		하락(하한)	361(0)	461(0)	582(0)	358(0)	423(1)
	ADR	88.29	84.56	81.85	82.45	82.77	
	이격도	10 일	100.51	100.52	99.89	100.09	99.99
		20 일	100.77	100.83	100.22	100.49	100.42
	투자심리	60	60	60	70	60	
	거래량	(백만 주)	344	311	412	334	299
	거래대금	(십억 원)	5,100	4,783	4,900	4,786	4,699
코스닥	코스닥지수	669.04	660.97	656.19	661.54	663.79	
	등락폭	1.04	-8.07	-4.78	5.35	2.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28(2)	321(2)	323(2)	768(2)	568(1)
		하락(하한)	564(0)	802(0)	789(0)	333(0)	519(0)
	ADR	105.88	104.58	103.80	104.63	104.95	
	이격도	10 일	100.05	99.06	98.54	99.41	99.74
		20 일	100.12	98.90	98.23	99.06	99.45
	투자심리	50	40	40	50	60	
	거래량	(백만 주)	512	561	735	565	550
	거래대금	(십억 원)	2,666	2,768	3,093	2,688	2,47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213.9	1,506.2	898.8	210.3	95.4	129.0	102.7	11.3	350.2	84.0
	매도	2,084.8	1,287.3	1,298.7	396.5	98.9	159.8	128.7	7.1	507.6	32.2
	순매수	129.1	219.0	-399.8	-186.2	-3.5	-30.8	-26.0	4.2	-157.4	51.8
	7월 누계	143.4	126.9	-461.9	-52.2	4.8	-90.3	38.1	-15.9	-346.4	191.6
	17년 누계	-3,953.9	9,358.1	-8,722.9	826.3	-1,389.8	-3,967.2	-72.3	-548.6	-3,571.4	3,318.6
코스닥	매수	2,159.6	214.8	93.3	24.8	7.9	23.0	16.1	1.0	20.4	12.4
	매도	2,136.8	205.2	111.6	34.1	14.2	20.0	17.0	1.3	25.1	26.5
	순매수	22.8	9.7	-18.3	-9.2	-6.3	3.0	-0.9	-0.4	-4.6	-14.1
	7월 누계	200.5	31.9	-215.1	-58.1	-24.7	-34.1	-39.1	-1.5	-57.5	-17.3
	17년 누계	2,126.2	1,121.4	-2,300.7	-672.5	-310.2	-634.9	-289.2	-51.7	-342.3	-947.0

PBR 1배라는 잣대

2017년 Target KOSPI	2,600pt
12MF PER	9.62배
12MF PBR	0.99배
Yield Gap	8.6%p

- ▶ PBR 1배는 한국시장 밸류에이션에서 오랫동안 기준지표로 활용됨
- ▶ ROE를 고려하지 않은 PBR은 무의미, PBR 1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
- ▶ 최근의 추가 상승은 실적 개선을 덜 반영, 10% 내외의 추가 상승 가능

■ PBR 1배는 한국시장 밸류에이션에서 오랫동안 기준지표로 활용됨

KOSPI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1년 4월 2,231pt를 기록한 이후 장장 6년 여에 걸쳐 2,000pt 언저리에서 장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던 KOSPI는 5월 4일 신고가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KOSPI가 급등하면서 단기 조정의 가능성 또는 버블은 아니더라도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나 하는 시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은 1) 지수가 너무 급하게 올랐다, 2) 지수 상승이 삼성전자 등 소수종목에 치중되어 있어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 3) 하반기 글로벌 경기와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2016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이어진 7개월 양봉 행진은 KOSPI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장기상승세는 너무나 오랜만에 겪는 일이라 그 동안 박스권 장세에 익숙해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팩터는 기업실적이며 2016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기업이익이 2017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 KOSPI의 박스권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7개월 양봉이라는 전에 없던 기록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된 면이 있다. 지속개월수라는 면에서는 분명 처음 있는 기록이지만 이 기간 추가 상승률은 과거 주요 상승기에 50% 이상씩 올랐던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2,400pt대를 넘보고 있는 KOSPI가 비싸지 않은가 하는 투자자들의 의문에 대해서도 필자의 대답은 “No”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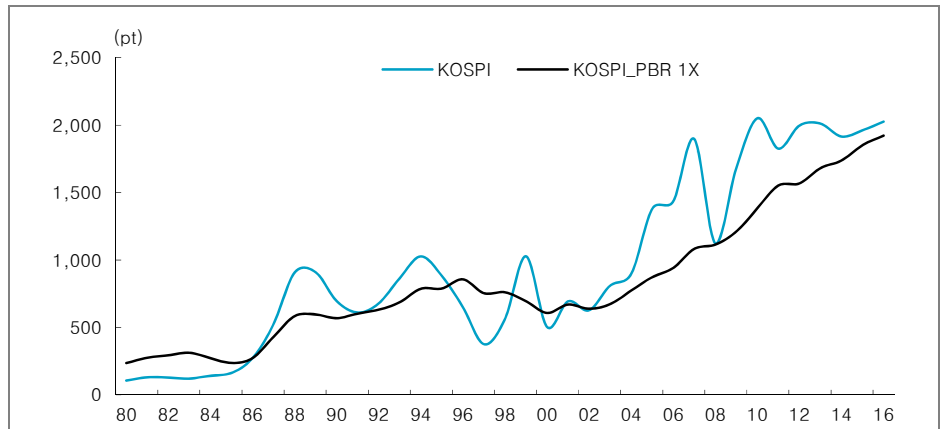
〈표 1〉 KOSPI 양봉의 역사

기간	지속개월	시가	종가	수익률
2001년 10월~2002년 3월	6개월	498.87	895.58	79.5%
2007년 2월~2007년 7월	6개월	1367.07	1933.27	41.4%
2016년 12월~2017년 6월	7개월	1987.48	2391.79	20.3%
* 1985년 9월~1986년 7월	10개월	136.03	273.75	101.2%
* 1988년 9월~1989년 3월	7개월	675.84	1003.31	48.5%
* 1998년 10월~1999년 7월	10개월	309.52	969.72	213.3%
* 2007년 2월~2007년 10월	9개월	1367.07	2064.85	51.0%
* 2009년 3월~2009년 9월	7개월	1044.28	1673.14	60.2%

주: *로 표시된 기간은 수치상 양봉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중간의 미미한 조정을 제외하면 사실상 추가 상승기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는 구간
 자료: 한국투자증권

한국 주식시장의 적정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PBR 1배라는 잣대가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투자전략가들의 논리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음에서 PBR 1배는 하락기에는 지지선으로 상승기에는 저항선으로 기능해왔던 기준이었다. [그림 1]은 한국 주식시장의 초기 활황국면이었던 1980년대 중반 이후 KOSPI 경로가 PBR 1배라는 기준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라왔음을 보여준다. 논리적인 밸류에이션이어야 어찌됐든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이 기준을 투자판단의 지표로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림 1] KOSPI와 PBR 1배 기준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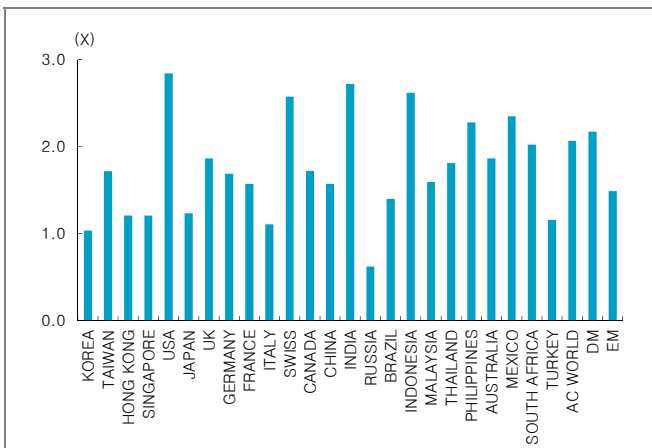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ROE를 고려하지 않은 PBR은 무의미, PBR 1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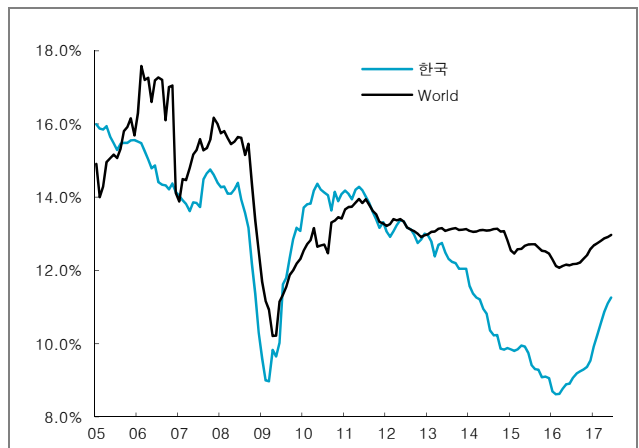
그러나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PBR 1배는 적정 밸류에이션의 기준으로 거의 의미가 없다. 2016년 6월 말 기준 MSCI 12MF PBR은 한국 1.0배, 세계 2.1배, 신흥국시장 1.5배 수준이다. 주가변동성이 크고 유가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PBR이 낮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고, PBR 1배라는 수치도 한국과 몇몇 국가의 경우이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이야기’ 다.

[그림 2] 글로벌 PBR 비교



주: MSCI 12MF 기준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그림 3]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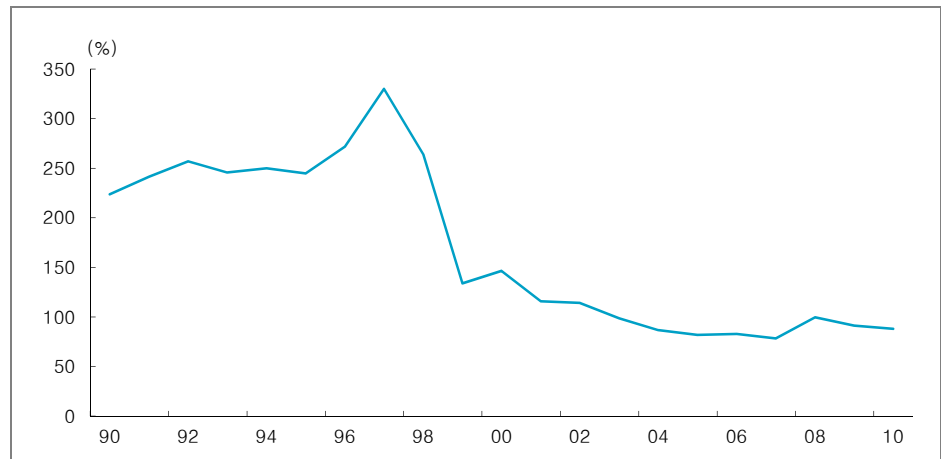


주: MSCI 기준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PBR은 RO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ROE가 높으면 PBR이 높고 ROE가 낮으면 PBR도 낮다. 논리적으로 적정 PBR은 $(ROE-g)/(Ke-g)$ 로 결정되고 성장률(g) 팩터를 제외하면 약식으로는 ROE/Ke로 표현된다. 한국시장의 PBR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ROE가 낮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선전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추정 ROE가 급등했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시장의 ROE는 글로벌 시장과 견주어 현저하게 낮았고 지금도 낮다.

한국시장의 ROE가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다. 혹자는 이를 두고 한국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탓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잦은 회계기준 변경(또는 허용)이 가져온 결과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전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은 200%가 훨씬 넘었고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의 신용평가와 자금차입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기업들은 수치상의 부채비율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편으로 자산재평가를 끊임 없이 요구했고 정책당국은 수시로 이를 허용했다. 2011년 IFRS로 회계기준이 변경될 때에도 한시적인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었다. 한국기업들의 낮은 ROE는 잦은 자산재평가로 자기자본이 증가하면서 초래된 수치상의 결과물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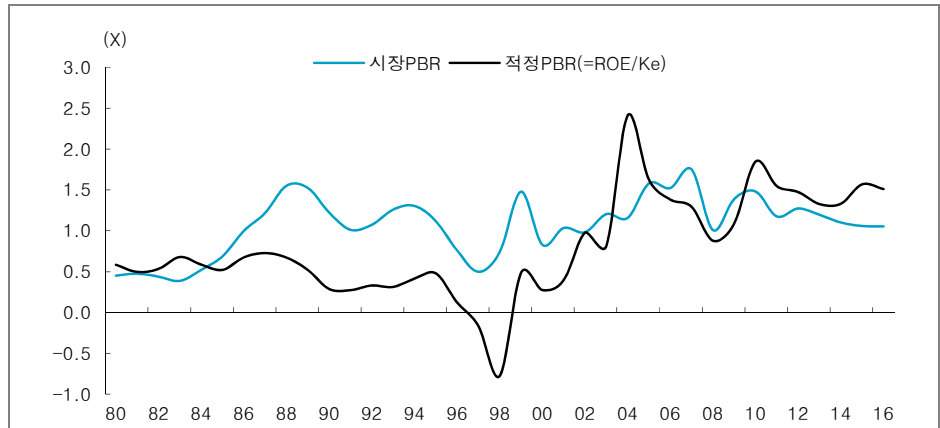
[그림 4] 한국 제조기업 부채비율(KOSPI 200, 비연결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어쨌든 PBR 1배는 시장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PBR 1배라는 잣대에 매몰되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잘못 판단한 사례는 1980년대 중반~199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KOSPI PBR은 1985년까지는 0.5배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는 계속 1배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돌이켜 보면 1990년대 한국시장의 이자율은 15%를 넘나들었고 ROE는 7%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기자본비용을 고려하면 당시 적정 PBR은 0.5배 내외였다. PBR 1배에 기대어 1000pt에 달했던 KOSPI 자체가 엄청난 고평가 상태였던 것이다. 그 결과가 1990년대 내내 이어졌던 500~1000pt 박스권이다. 시장 PBR과 적정 PBR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된 것은 2000년 이후다.

[그림 5] 시장 PBR과 적정 P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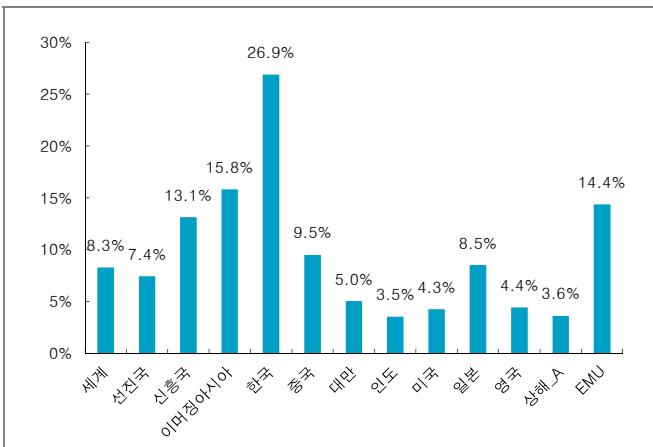
주: 적정 PBR=ROE/Ke, Ke는 위험프리미엄을 4%로 가정하고 계산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최근의 주가 상승은 실적 개선을 덜 반영, 10% 내외의 추가 상승 가능

ROE를 감안한 PBR이라는 잣대로 보면 현재 한국시장 PBR은 개선된 기업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PER = PBR / ROE$ 이므로 ROE 기준으로 PBR을 본다는 것은 결국 PER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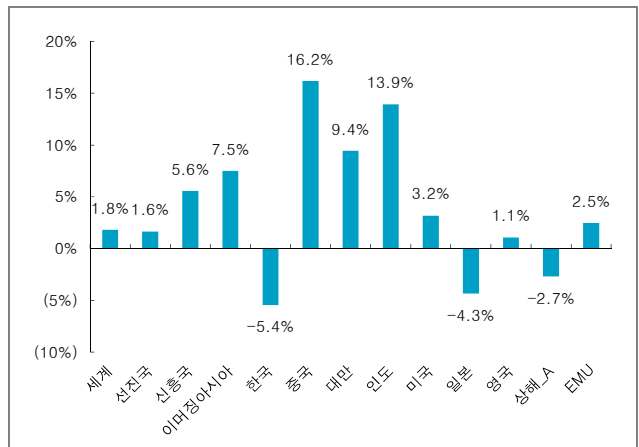
PER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이다. 6월말 기준 한국시장의 MSCI 12MF PER은 9.4배로 세계시장(16.0배)과 신흥국시장(14.1배) 대비 각각 41%, 23%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올 들어 한국시장의 기업이익 추정치는 26.9% 상향되어 가장 괄목할만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주가 상승은 그에 미치지 못해 PER은 연초 대비 오히려 하락했고, 글로벌 시장 대비 할인율도 높아졌다. 2017년 상반기의 KOSPI 상승을 유동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유동성이 영향을 미쳤다면 PER이 높아졌어야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면 할인율이 낮아졌어야 한다. 상반기 시장을 해석할 때 기업이익 외에 다른 요인들은 거의 부차적이었다.

[그림 6] MSCI 12MF EPS 변화(6월말 기준, Y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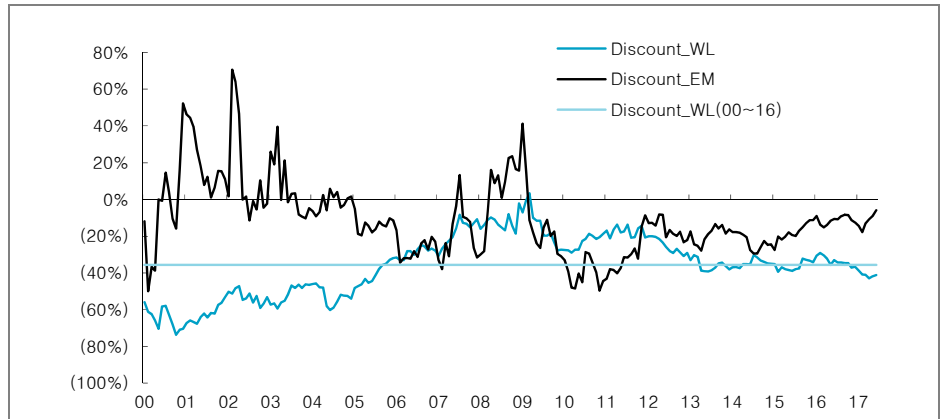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그림 7] MSCI 12MF PER 변화(6월말 기준, YTD)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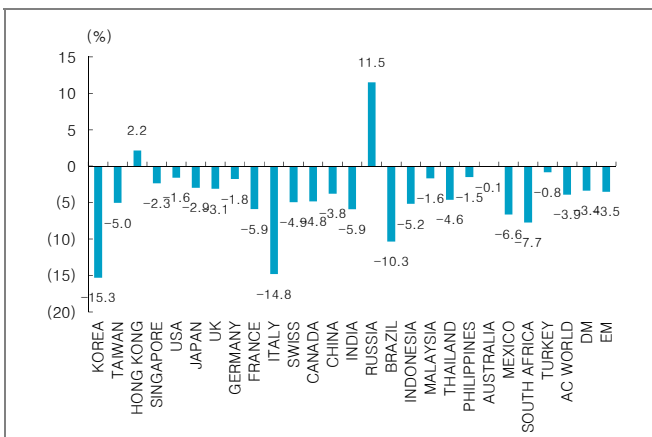
[그림 8] 세계시장 및 신흥국시장 대비 한국시장 할인율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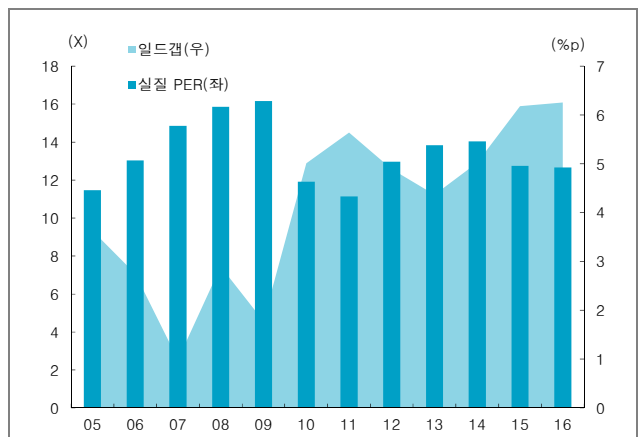
하반기 시장은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들 보는 지표는 12MF PER이지만 필자가 관심 있게 보는 지표는 actual PER(=연말 시총/결산이익)이다. 12MF PER을 계산할 때 이용되는 애널리스트 추정치 컨센서스에 낙관적 편향이 크게 작용해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시장의 낙관적 편향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경험적으로 가장 높다. 2005년 이후 한국시장의 actual PER은 13배 내외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Actual PER 13배가 한국시장 평가에는 좀더 나은 기준이 될 수 있다. 6월 말 주요 200개 기업의 추정이익 컨센서스 기준 예상 PER은 10.5배인데, 낙관적 편향 10%를 적용해서 이익을 조절하면 PER은 11.7배가 된다. 올 연말에도 actual PER 13배 수준에서 KOSPI가 마감된다면 10% 남짓한 상승 포텐셜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그림 9] 국가별 기업이익의 컨센서스의 추정 오차



주: 4월 추정치 대비 결산실적, 2000~2016년 중간값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Actual PER(=연말시총/결산실적)



주: 2011년까지는 KOSPI 200, 이후에는 주요 200개 기업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중국증시, V자 반등을 보이며 상승세 지속

- ▶ 상해종합지수는 0.2% 상승, 공급과잉 산업들의 구조조정 효과 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호재
- ▶ 홍콩H지수는 0.3% 하락, 국제유가가 4%대 하락하며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인 것이 악재

상해종합지수 0.2% 상승,
보험, 석탄, 비철금속, 철강
등의 업종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2% 상승한 3,212p를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약세로 출발한 주식시장은 장중 하락폭이 0.6%까지 확대됐으나 V자 반등을 보이며 마감직전 강세로 전환됐다. 거래대금은 2,022억위안으로 직전일에 비해 16.5% 증가했다. 직전일에 이어 보험업이 강세를 이어간 것과 공급과잉 산업들의 구조조정 효과 기대감이 부각되며 석탄, 철강 등의 시크리컬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다임러가 북경자동차와 제휴를 맺고 북경에 전기배터리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리튬배터리 관련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보험, 석탄, 비철금속, 철강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인프라 건설, 부동산, 정유주는 약세를 보였다. 메인보드의 반등에 동조하며 차스닥 지수도 0.1% 상승한 1,839p로 마감했다. 한편 막판 반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상해와 심천주식을 모두 순매도했다.

홍콩H지수 0.3% 하락,
에너지, 은행, 소재, 산업재
등의 업종 약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하며 0.3% 하락한 10,346p로 마감했다. 보험세로 출발한 주식시장은 장중 하락폭이 확대됐다. 직전일 러시아가 추가 감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4.1% 하락하며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은행, 소재 등이 하락한 반면 자동차와 보험 관련 주는 강세를 보였다. 은행주와 정유주의 약세 속에 항셱지수도 0.2% 하락한 25,465p로 마감했다. AH 프리미엄지수는 본토 금융주의 상대적 강세 속에 직전일보다 소폭 상승한 128p로 마감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7/6 (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212.44	0.17	0.76	3.56	3.51
심천종합	1,914.59	0.08	1.18	5.73	-2.77
차스닥	1,839.00	0.13	1.40	4.11	-6.27
홍콩H	10,346.32	-0.33	-0.82	-2.45	10.13
Shibor 7일물 금리(% , %p)	2.79	-0.39	-1.88	-3.59	9.79
Shibor 1개월 금리(% , %p)	4.28	-1.42	-4.14	-2.00	29.35
중국국채 10년물(% , %p)	3.57	-0.52	0.52	-2.08	17.62
위안/달러 고시환율	6.7953	0.05	0.31	0.03	-2.04
역내 위안/달러	6.8039	-0.03	-0.25	-0.13	2.07
역외 위안/달러	6.8049	-0.07	-0.17	-0.72	2.52

주: 6일 오후 5시 29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기관 매도에 상승에 제한되며 혼조세로 마감

- 뉴욕증시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락하며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하며 혼조세로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국가지방단체를 비롯한 기관 매도세로 장중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약보합세로 마감.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이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 도입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감 및 지분율을 확대한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엔씨소프트가 강세를 보였으며,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스템임플란트가 견조한 흐름세를 보임. 인수전의 핵심 사안이었던 상표권 사용 조건에 관한 채권단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금호타이어가 강세를 보였으며, 클라우드 발전법 본격화에 따른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에 엑셀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지난 6월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했다는 소식에 이마트가 강세를 보임. 또한, 다음주 초복을 앞두고 매출 증가 기대감에 마니커, 하림이 강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제약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계절적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의 정상화로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LG전자가 하락했으며,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모두투어가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엔씨소프트(036570) ▶405,000 (+4.25%)	아이템 거래소 오픈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템 거래소를 갖춘 '리니지M'이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 앱으로 출시됨에 따라 매출 증가 기대감에 강세 - '리니지M'은 출시 2주 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흥행에 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거래소 도입을 통해 매출 상승폭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오스템임플란트(048260) ▶59,000 (+5.17%)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견조한 흐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분기 연속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해외 매출액이 분기 최초 5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견조한 흐름세 - 지난해 2분기 복경법인 영업정지에 따른 저지효과로 2분기 중국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천진법인 영업 개시로 판매 라이선스 관련 우려가 해소됨
제약주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첫 20조원 돌파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시장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한 21조7256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강세 - 팜스웰바이오(043090, +5.13%), 유한양행(000100, +3.53%), 한미사이언스(008930, +2.95%), JW중외제약(001060, +2.58%), 우리들제약(004720, +2.43%), 한미약품(128940, +2.01%)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일진파워(094820) ▶5,280 (+8.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원전 시대를 맞아 주력인 화력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인 복합발전설비 시설을 확장해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대비한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디와이파워(210540) ▶17,800 (+4.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압실린더 판매 급증에 따른 중국법인 실적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세진중공업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세진중공업 (075580)	4,130 (-1.7)	4,200 (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중공업 그룹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2017년을 저점으로 2019년부터 2015년 매출 수준 회복 전망 - 길었던 업계 구조조정을 견뎌냄에 따라 시장 내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점유율 증가 기대 - LPG탱크 기술을 기반한 가스선 탱크 제작, EGCS(배기가스 저감장치) 시장 진출 등 제품 다변화 기대
대주전자재료 (078600)	6,900 (+2.7)	6,720 (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도성 페이스트 부문 주요 고객사에 삼성전기가 추가되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의 사용처가 IT 부문에서 자동차 전장 부문으로 확장되며 MLCC 수요 증가 전망 - 일반용 LED 부문에서 발생하던 형광체 매출이 자동차용 PIG(Phosphor in Glass) 매출까지 확대되며 실적 성장 전망
알엔투테크놀로지 (148250)	10,600 (+51.4)	7,000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전력소모와 높은 신뢰성을 겸비한 LTCC 소재 수요는 전자부품의 경박단소 및 고주파화에 따라 증가할 전망 - 지난 4월 증설한 강릉 2공장이 18년 2분기부터 가동하며 신규품목 생산에 따른 매출 확대 전망 - 향후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하츠 (066130)	5,670 (-4.9)	5,960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이후 본격적인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올해와 내년 레인지후드의 매출 증가 전망 - 매출의 1/4가량을 차지하는 빌트인기기의 자체 생산을 통한 이익률 개선 전망 - 신규 건축물의 대형화와 초고층화 추세로 환기시스템 시장의 구조적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씨엠에스에듀 (225330)	27,750 (-0.7)	27,950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1분기 잠실과 서초 직영점 개원에 이어 연간 4~5개의 직영점 확대로 안정적 성장 지속 전망 - 5%를 상회하는 높은 배당 매력 보유와 동시에 코딩교육센터를 통한 신규 성장 동력 강화 - 18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학교육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전망
코웰패션 (033290)	4,170 (+22.1)	3,415 (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 가능 - 언더웨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연 평균 11.7%)에 따른 수혜 전망 - 최근 제품 다각화를 통해 언더웨어 외 매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향후 브랜드 추가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성장이 기대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타이거일렉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KG ETS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KG ETS (151860)	4,360 (+3.3)	4,220 (7/05)	125	20	15	428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팀 판가와 동 가적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 				
SK (034730)	276,500 (-1.3)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풍산 (103140)	45,000 (+10.3)	40,800 (5/23)	2,970	279	190	6,766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주가 할인 요인 제거 -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이지바이오 (035810)	6,650 (+0.9)	6,590 (5/17)	1,438	99	41	754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 및 돈육 시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수기 진입에 따라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호실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 - 올해 당사의 자회사인 옵티팜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 - 6월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당사의 주가가 재조명될 가능성 존재 				
파트론 (091700)	9,490 (-16.4)	11,350 (4/13)	887	67	51	979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럭시S8 사전예약이 돌풍을 일으키며 전면 카메라 주요 부품 공급사들의 수혜 예상 - 스마트폰의 스펙 향상과 IoT제품 판매 증가에 따라 센서모듈사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모듈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과 헬스케어 센서 시장으로 본격 진출 예상 				
오텍 (067170)	14,600 (+28.6)	11,350 (4/6)	828	37	17	1,288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 -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 -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은행: 2Q17 Preview - 긍정적 시각을 유지

■ 추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업 경기국면상 비중확대 유지

국내 은행주 지수인 KRX은행은 연초 대비 30%, 최근 1주일동안 6%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여력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점이다. 다만 NIM 상승과 대손을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자산가격의 안정적 상승으로 일회성 이익들이 꾸준히 발생되는 은행업 경기 상승 국면이 기대를 초과하는 폭과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업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 2분기 NIM은 3bp 개선

2분기 은행 업종 NIM은 3bp 상승할 전망이다. 먼저 작년 하반기 금리상승의 대출금리 반영으로 1~3월 동안 NIM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따라서 3월 NIM이 1분기 NIM보다 높은 상황인데, 3월 NIM이 2분기에 대체로 유지됨에 따라 2분기 NIM이 전분기대비 개선되는 그림이다. 최근 CD금리나 신규 코픽스 등이 2분기에 소폭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NIM이 상승한 또 다른 요인은 가계대출 가산금리 상승과 저원가성수신 및 고수익성 대출 비중 상승이다.

■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수익성에 우호적으로 여수신 포트폴리오가 변화 중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향 중이다. 8월에 있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당분간 지속될 기 승인된 중도금대출의 단계적 기표를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지속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은행들의 연간 대출 증가목표(4~6%)를 초과하는 유동성(Lf) 증가로 인해 저원가성수신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14년 중순에 30%에 불과하던 저원가성수신 비중은 현재 37%까지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가계대출 내에서는 규제목적상 주택담보대출(평균 대출금리 2.98%)에서 일반 신용대출(4.38%)로, 기업대출 내에서는 은행들의 경기민감업종 리스크관리 목적상 대기업대출(3.30%)에서 중소기업대출(3.60%)로 차별적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

■ 미국 금리 상승은 국내 단기물 금리의 지지선으로 작용

추가적으로는 비록 2분기 실적 이슈는 아니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장단기 전 구간에 걸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우호적인 국내 채권시장 수급요건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미국과 같은 속도로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추가적인 인상한 후에는 낮은 민감도라 해도 일정부분 국내 금리상승이 불가피하다. 현재 은행주는 시장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미국금리 상승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은행주에 긍정적인 사안이다.

■ 2분기 대출 증가율은 1~2%로 적정 수준 수렴

2분기 대출은 전분기대비 0.7%~2.3% 범위 내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금감원 속보치를 보면 2분기(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1%로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사철 등 계절성 수요 및 6.19 대책이 시행되는 7월 전의 일부 대출 선수요 때문이다. 한편 연간으로 보면 초과성장보다는 17년 대출 증가 목표대로 성장할 것이다. 현재 연간 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은 4~5%, 지방은행들은 6~8%이다. 물론 최근 6.19 대책과 8월에 있을 가계부채 종합대책, 3대 정책모기지의 시중은행 가계대출 구축효과로 인해 은행 자체의 가계대출 성장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존재한다. 다만 은행의 자체적 대출 목표와 당국의 대출 증가율 상한선 규제목표가 충돌하지 않는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정유: 2Q17 Preview - 2분기 이후 이익 모멘텀에 주목

■ 유가 약세로 2분기 실적 둔화

6월 동안의 유가 약세를 반영해 정유 3사의 201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3~11% 하향한다.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8% 줄어든 5,263억원을 기록할 것이다. 1) 유가 하락으로 정제마진이 줄었고, 2) 재고평가손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분기 1개월 후행 기준 아시아 정제마진은 기존 추정인 배럴당 6.2달러 대비 21% 낮은 4.9달러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재고평가손실 또한 기존 추정 대비 700억원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S-Oil과 GS의 2분기 실적 또한 같은 이유로 부진할 것이다. S-Oil과 GS의 2분기 영업이익은 1,735억원(-48% QoQ)과 3,998억원(-38% QoQ)으로 예상된다. 정유 3사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도 낮아질 것이다. SK이노베이션, S-Oil, GS 각각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34%, 53%, 17% 낮아질 전망이다.

■ 일회성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

2분기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악화는 주 원재료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일회성 손실 때문이다. 2분기 spot 정제마진의 경우 유가 노이즈와 상관 없이 견조한 석유제품 수급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30% 상승한 배럴당 6.4달러(1개월 후행 정제마진 대비 29% 높음)를 기록했다. 유가하락 관련 노이즈를 제외할 경우, SK이노베이션, S-Oil, GS칼텍스의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각각 3,360억원, 1,640억원, 2,270억원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향후 분기 실적 가파르게 회복될 것

2분기 부진한 실적은 뒤로하고, 3분기부터 나타날 이익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flat한 WTI 선물 곡선과 같이 유가로 인한 일회성 이익 또는 손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3분기 spot 정제마진은 7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5,550억원(+374% QoQ)에 달할 것이다. 실제로 spot 정제마진은 이미 6월 중순 이후 배럴당 7달러 내외로 상승했다. 동일한 가정하에, S-Oil의 3분기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2분기 300억원의 적자에서 1,845억원으로 흑자전환하고, GS칼텍스의 3분기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45% 늘어날 전망이다.

■ 정유주 추가 매수 기회

국내 정유 3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2분기 실적 우려로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매수 기회다.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 S-Oil과 SK이노베이션의 현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6% 수준이고, 2) ROE-PBR 회귀분석상, SK이노베이션과 GS는 global peer 대비 4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 또한, 향후 정유 수급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 신규설비는 제한적인 가운데, 주요 지역들의 정제설비 가동률은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E&P 비중이 높은 석유업체들 대비 정유 산업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들의 디스카운트는 결국 해소될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철강 · 비철금속: 2Q17 preview - 1보 후퇴, 그러나 3분기엔 2보 전진

■ 철강 - 더딘 원가 개선으로 예상보다 더 부진한 2분기

철강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부진할 전망이다. 우리는 6월에 철강업체들의 실적이 대부분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로 집계된 원재료 수입 가격을 감안하면 하회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하락한 원재료가 6월부터 투입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5월 수입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 달이 넘는 원재료 재고를 고려하면 우리 가정과 달리 6월부터 원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반영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POSCO가 8,665억원으로 컨센서스를 12.3%, 현대제철이 3,85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3.7%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 비철 - 부정적 대외 변수, 이를 극복하는 풍산

2분기 비철의 대외 변수가 부정적이다. 주요 금속인 아연과 동 가격이 하락한데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원화로 환산한 금속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고려아연의 분기 실적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아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예상된다. 우리는 2분기 고려아연의 연결 영업이익이 2,023억원으로 컨센서스를 7%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풍산은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612억원으로 컨센서스를 4% 상회할 전망이다. 철강/비철 주요 업체 중 유일하게 시장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출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공이익률이 상승해 동 가격 약세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 하반기, 철강 업황 개선에 집중할 시기

상반기를 돌아보면 철광석, 강점탄, 아연, 동, 원/달러 환율 등 주요 변수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하반기는 시작부터 소재 가격이 상승해 주요 변수가 긍정적으로 방향 전환되었다. 철강은 본격적으로 하락한 원가가 투입되는 가운데 제품 가격, 특히 판재류 가격이 상승해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국내 철강 원재료와 제품 가격은 중국 가격에 한 달 이상 후행하는데 중국은 5월부터 원재료 수입 가격은 하락한 반면 판재류 가격은 상승했다. 이러한 중국 업황 개선이 국내에는 3분기에 나타날 것이다. 하반기는 철강 업황 개선에 집중할 시기이다.

■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 최선호주 - POSCO, 선호주 - 풍산, 현대제철

철강/비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 그러나 부진이 예상되었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3분기 업황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실적 시준에 주가가 하락하면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국 철강/비철 업체의 저평가 국면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 점도 하반기에 섹터 업체들의 전반적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와 ROE에 비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는 POSCO, 현대제철, 그리고 풍산이다. 섹터 최선호주로 POSCO, 선호주로 풍산과 현대제철을 제시한다. 한편 프리미엄 가전 시장의 확대와 봉형강의 초호황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포스코강판과 철근업체들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7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30(금)	7/3(월)	7/4(화)	7/5(수)	7/6(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91.79	2,394.48	2,380.52	2,388.35	2,387.81	
	등락폭	-3.87	2.69	-13.96	7.83	-0.54	
	등락종목	상승(상한)	419(0)	336(1)	216(1)	420(0)	379(0)
		하락(하한)	361(0)	461(0)	582(0)	358(0)	423(1)
	ADR	88.29	84.56	81.85	82.45	82.77	
	이격도	10 일	100.51	100.52	99.89	100.09	99.99
		20 일	100.77	100.83	100.22	100.49	100.42
	투자심리	60	60	60	70	60	
	거래량	(백만 주)	344	311	412	334	299
	거래대금	(십억 원)	5,100	4,783	4,900	4,786	4,699
코스닥	코스닥지수	669.04	660.97	656.19	661.54	663.79	
	등락폭	1.04	-8.07	-4.78	5.35	2.25	
	등락종목	상승(상한)	528(2)	321(2)	323(2)	768(2)	568(1)
		하락(하한)	564(0)	802(0)	789(0)	333(0)	519(0)
	ADR	105.88	104.58	103.80	104.63	104.95	
	이격도	10 일	100.05	99.06	98.54	99.41	99.74
		20 일	100.12	98.90	98.23	99.06	99.45
	투자심리	50	40	40	50	60	
	거래량	(백만주)	512	561	735	565	550
	거래대금	(십억원)	2,666	2,768	3,093	2,688	2,471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213.9	1,506.2	898.8	210.3	95.4	129.0	102.7	11.3	350.2	84.0
	매도	2,084.8	1,287.3	1,298.7	396.5	98.9	159.8	128.7	7.1	507.6	32.2
	순매수	129.1	219.0	-399.8	-186.2	-3.5	-30.8	-26.0	4.2	-157.4	51.8
	7월 누계	143.4	126.9	-461.9	-52.2	4.8	-90.3	38.1	-15.9	-346.4	191.6
	17년 누계	-3,953.9	9,358.1	-8,722.9	826.3	-1,389.8	-3,967.2	-72.3	-548.6	-3,571.4	3,318.6
코스닥	매수	2,159.6	214.8	93.3	24.8	7.9	23.0	16.1	1.0	20.4	12.4
	매도	2,136.8	205.2	111.6	34.1	14.2	20.0	17.0	1.3	25.1	26.5
	순매수	22.8	9.7	-18.3	-9.2	-6.3	3.0	-0.9	-0.4	-4.6	-14.1
	7월 누계	200.5	31.9	-215.1	-58.1	-24.7	-34.1	-39.1	-1.5	-57.5	-17.3
	17년 누계	2,126.2	1,121.4	-2,300.7	-672.5	-310.2	-634.9	-289.2	-51.7	-342.3	-947.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7,439	서비스업	-12,641	전기전자	24,275	운수장비	-14,363
철강금속	4,000	화학	-8,456	서비스업	13,843	철강금속	-11,409
의약품	3,816	전기전자	-7,172	기계	6,975	통신업	-7,027
POSCO	5,037	현대로보틱스	-9,009	삼성전자	16,012	POSCO	-7,676
SK이노베이션	3,170	효성	-5,902	엔씨소프트	9,504	현대차	-6,806
SK하이닉스	2,504	LG전자	-5,195	삼성SDI	8,239	삼성전기	-6,464
하나금융지주	2,477	LG유플러스	-3,252	SK하이닉스	7,253	아모레퍼시픽	-6,427
삼성물산	2,123	현대차	-2,786	현대건설기계	7,078	NAVER	-5,32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6,862	은행	-1,136	서비스업	7,501	운수장비	-8,325
운수장비	1,350	의약품	-177	미분류	5,282	기타금융업	-3,778
서비스업	1,258	통신업	-173	의약품	3,132	전기전자	-1,117
KODEX 레버리지	7,842	KODEX 200	-2,999	KODEX 200	6,880	LG전자	-5,271
TIGER 200 IT	1,582	KOSEF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합성)	-1,446	엔씨소프트	5,538	KODEX 삼성그룹	-3,664
KODEX 은행	1,247	기업은행	-1,136	LG디스플레이	3,086	현대차	-2,951
KT&G	1,001	SK텔레콤	-765	한미약품	2,855	현대모비스	-2,843
현대모비스	992	TIGER 경기방어	-667	삼성생명	2,425	GS	-1,633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9,170	전기전자	-147,922	운수장비	37,068	미분류	-6,506
기계	4,066	운수장비	-65,945	철강금속	30,000	의료정밀	-576
의료정밀	2,238	화학	-39,594	기타금융업	21,335	종이목재	-28
엔씨소프트	24,105	삼성전자	-87,773	삼성전자	66,830	LG디스플레이	-18,179
일진머티리얼즈	9,159	LG전자	-30,508	현대차	18,890	SK하이닉스	-15,245
이마트	8,851	현대차	-23,654	KB금융	18,102	NAVER	-13,986
현대건설기계	8,404	삼성전기	-22,581	엔씨소프트	16,447	LG전자	-13,136
삼성SDI	8,030	효성	-15,695	POSCO	14,482	SK이노베이션	-10,943
TIGER 200	7,767	NAVER	-14,836	유한양행	9,701	TIGER 200	-7,922
삼성생명	4,457	POSCO	-13,228	한국전력	9,438	신한지주	-5,469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3,863	SK텔레콤	-12,553	LG	9,065	삼성SDI	-5,381
SK이노베이션	3,650	현대모비스	-9,937	효성	8,645	대한유화	-3,416
금호타이어	3,460	아모레퍼시픽	-9,636	현대제철	7,439	넷마블게임즈	-2,85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2,878	금융서비스	-822	인터넷	3,477	오락,문화	-1,750
디지털컨텐츠	1,451	기계,장비	-395	의료,정밀기기	3,212	사업지원	-1,257
계약	1,040	음식료,담배	-391	방송서비스	512	IT부품	-1,160
카카오	2,914	SK머티리얼즈	-1,888	카카오	3,379	인터플렉스	-1,664
원익IPS	1,373	한화ACPC스팩	-485	오스팀임플란트	3,247	에스엠	-1,297
셀트리온	1,068	하이비전시스템	-460	상아프론테크	808	모두투어	-1,096
오스팀임플란트	897	에스티팜	-459	테스	803	피에스케이	-872
더블유게임즈	797	모두투어	-445	실리콘웍스	626	더블유게임즈	-78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연구,개발	112	금융서비스	-155	의료,정밀기기	1,451	계약	-3,232
전문기술	90	화학	-132	금융	547	화학	-1,771
환경	29	사업지원	-103	디지털컨텐츠	241	운송장비,부품	-619
동진씨미켄	150	케이티비스팩1호	-163	오스팀임플란트	1,395	케어젠	-1,766
바이로메드	112	테라세미콘	-134	포스코 ICT	624	네오팜	-1,150
유신	90	코스메카코리아	-131	제일홀딩스	402	인크로스	-964
이라이콤	85	피에스케이	-113	테스나	304	셀트리온	-859
웰덱스	80	모두투어	-103	컴투스	274	휴젤	-67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7,979	계약	-7,409	계약	20,517	IT부품	-10,072
의료,정밀기기	6,333	기계,장비	-5,167	의료,정밀기기	5,038	금융	-4,225
금융	770	IT부품	-4,082	소프트웨어	2,673	인터넷	-3,167
카카오	7,825	인터플렉스	-3,201	셀트리온	11,663	카카오	-3,815
오스팀임플란트	7,289	모두투어	-2,485	오스팀임플란트	3,783	제일홀딩스	-3,480
테스	1,830	신라젠	-2,171	휴젤	3,644	동진씨미켄	-2,813
에코프로	1,515	한화ACPC스팩	-2,105	테스	3,339	에코프로	-2,366
원익IPS	1,316	SK머티리얼즈	-2,078	에스에프에이	2,348	더블유게임즈	-2,094
포스코 ICT	1,176	케어젠	-1,877	신라젠	2,119	파트론	-1,841
이엘피	1,093	에스에프에이	-1,836	티씨케이	1,456	우리산업	-1,746
상아프론테크	873	휴젤	-1,538	KG이니시스	1,333	바이로메드	-1,494
실리콘웍스	855	우리산업	-1,497	테라세미콘	1,256	매일홀딩스	-1,248
게임빌	766	SKC코오롱PI	-1,429	모두투어	1,155	파라다이스	-1,246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화왕관	37 일	KPX홀딩스	37 일	AP위성	33 일	케이아이엔엑스	31 일
동일산업	25 일	부산가스	29 일	동화기업	14 일	하이록코리아	20 일
SIMPAC	24 일	삼성화재	25 일	케이비드림3호스팩	11 일	로엔	17 일
TIGER 200	22 일	제주항공	24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11 일	유니더스	13 일
영풍	20 일	아시아나항공	18 일	게임빌	10 일	바른손이앤에이	13 일
풍산	19 일	금호산업	15 일	텔레칩스	10 일	리노공업	12 일
KOSEF 미국달러선물	18 일	코라오홀딩스	12 일	디오	10 일	한국기업평가	12 일
삼원강재	18 일	동원	11 일	영풍정밀	10 일	녹십자셀	1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200	102,938	POSCO	87,056	오스템임플란트	13,989	셀트리온	27,631
롯데케미칼	52,694	KB금융	38,442	메디톡스	10,181	휴젤	24,194
POSCO	49,699	현대모비스	36,332	카카오	7,145	오스템임플란트	14,835
LG화학	49,130	엔씨소프트	28,931	게임빌	5,251	SKC코오롱PI	7,355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30,349	LG화학	27,010	컴투스	4,676	테라세미콘	5,836
삼성SDI	29,796	대한항공	25,052	나노신소재	3,257	더블유게임즈	5,366
엔씨소프트	25,356	효성	24,441	인바디	2,796	주성엔지니어링	4,394
대림산업	21,579	삼성화재	22,299	매일유업	2,662	뉴트리바이오텍	4,15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계	4,066	2,738	6,805	의료,정밀기기	6,333	5,038	11,371
섬유의복	211	6,343	6,553	소프트웨어	316	2,673	2,988
은행	133	942	1,074	방송서비스	547	1,036	1,583
엔씨소프트	24,105	16,447	40,552	셀트리온	333	11,663	11,996
일진머티리얼즈	9,159	2,048	11,206	오스템임플란트	7,289	3,783	11,072
한화케미칼	639	6,808	7,447	테스	1,830	3,339	5,169
금호타이어	3,460	3,322	6,782	티씨케이	258	1,456	1,715
삼성생명	4,457	1,652	6,109	KG이니시스	142	1,333	1,475
한세실업	322	5,022	5,344	CJ E&M	542	814	1,356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3,863	114	3,977	테라세미콘	89	1,256	1,345
한미약품	2,706	1,206	3,912	메디톡스	40	1,050	1,090
우리은행	1,128	2,444	3,572	상아프론테크	873	205	1,078
하나금융지주	1,310	1,009	2,319	다나와	139	865	1,00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일동홀딩스	37 일	SIMPAC	26 일
삼성카드	25 일	이노션	23 일
GS리테일	25 일	TIGER 200	22 일
신세계인터넷내셔널	16 일	현대EP	22 일
한솔제지	15 일	맥쿼리인프라	21 일
GS글로벌	15 일	MH에탄올	17 일
LG유플러스	14 일	진양화학	16 일
쌍용차	14 일	광동제약	13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그랜드백화점	27 일	조이맥스	41 일
아이디스	26 일	에스텍	27 일
골든센츄리	21 일	코메론	26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21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19 일
일지테크	20 일	동우팜투테이블	17 일
NICE평가정보	18 일	삼아제약	17 일
금화피에스시	17 일	디지털대성	14 일
대원산업	17 일	팬엔터테인먼트	1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91,628	삼성전자	-178,427
SK하이닉스	-63,340	TIGER 200	-104,493
삼성바이오로직스	-61,022	SK하이닉스	-74,506
현대모비스	-56,568	삼성바이오로직스	-57,135
현대차	-55,095	삼성전기	-25,038
NAVER	-53,317	NAVER	-22,581
LG전자	-39,716	KODEX 200	-19,303
효성	-39,682	한국항공우주	-15,551

KOSDAQ			
기	관	외	국 인
제일홀딩스	-31,226	제일홀딩스	-22,500
에스에프에이	-16,415	메디톡스	-9,245
셀트리온	-14,614	에스에프에이	-7,776
휴젤	-14,112	파트론	-5,649
SK머티리얼즈	-10,421	원익IPS	-4,978
테스	-8,544	신라젠	-4,952
CJ E&M	-8,350	에코프로	-4,643
뷰릭스	-7,886	이오테크닉스	-4,36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47,922	11,020	-136,903
운수장비	-65,945	37,068	-28,877
화학	-39,594	16,371	-23,224
LG전자	-30,508	-13,136	-43,644
NAVER	-14,836	-13,986	-28,823
LG디스플레이	-9,551	-18,179	-27,730
삼성전기	-22,581	-2,291	-24,872
SK하이닉스	-7,757	-15,245	-23,001
아모레퍼시픽	-9,636	-2,531	-12,166
신한지주	-5,775	-5,469	-11,243
삼성바이오로직스	-4,595	-1,819	-6,414
넷마블게임즈	-3,161	-2,851	-6,012
롯데케미칼	-2,281	-2,456	-4,738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IT부품	-4,082	-10,072	-14,154
기계, 장비	-5,167	397	-4,770
금융	770	-4,225	-3,455
제일홀딩스	-300	-3,480	-3,781
우리산업	-1,497	-1,746	-3,243
파트론	-895	-1,841	-2,736
더블유게임즈	-194	-2,094	-2,287
케어젠	-1,877	-125	-2,002
SKC코오롱PI	-1,429	-394	-1,823
주성엔지니어링	-688	-1,038	-1,726
AP시스템	-1,172	-498	-1,670
에스엠	-1,328	-287	-1,615
인트론바이오	-162	-1,105	-1,26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디스플레이	472	18,402
현대로보틱스	29	11,455
SK하이닉스	129	8,642
현대차	46	7,189
LG전자	78	6,254
엔씨소프트	16	6,204
삼성전자	3	6,150
삼성SDI	34	5,899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35	3,580
에스에프에이	70	2,728
SK머티리얼즈	8	1,442
인터플렉스	25	954
주성엔지니어링	69	953
파라다이스	65	899
파트론	73	715
이오테크닉스	8	67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91	8,542,470
SK하이닉스	40,102	2,726,938
엔씨소프트	4,247	1,650,132
삼성바이오로직스	4,571	1,321,057
LG디스플레이	31,543	1,227,020
NAVER	1,448	1,208,757
KB금융	18,602	1,065,872
하나금융지주	21,006	943,161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7,322	3,024,544
카카오	5,374	550,878
바이로메드	2,458	248,961
파라다이스	17,751	246,745
로엔	2,800	246,127
메디투스	332	182,545
코미팜	4,601	167,925
신라젠	4,391	96,39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장비	2,151 기계	-13,110	
통신업	1,700 은행	-3,668	
기타금융업	1,590 미분류	-3,447	
하나금융지주	2,495 두산인프라코어	-13,515	
SK네트웍스	1,552 우리은행	-4,816	
LG유플러스	1,462 팬오션	-1,882	
한진중공업	1,386 대우건설	-1,638	
한화생명	1,243 KODEX 200	-1,606	
기업은행	1,150 아모레퍼시픽	-1,297	
금호타이어	920 파워 200	-1,199	
신한지주	920 SK하이닉스	-835	
NH투자증권	809 신성이엔지	-827	
미래에셋대우	745 현대산업	-819	

KOSDAQ			
순 증		순 감	
기계,장비	2,319 오락,문화	-823	
IT부품	1,600 소프트웨어	-214	
연구,개발	1,029 일반전기전자	-144	
파트론	1,424 이엘케이	-859	
신라젠	1,088 코디엠	-793	
옵트론텍	540 캄시스	-545	
케이피엠테크	459 대아티아이	-436	
유지인트	444 파라다이스	-432	
HB테크놀로지	430 SFA반도체	-340	
삼우엠스	384 뉴프라이드	-318	
크루셜텍	383 원익홀딩스	-294	
에스에프에이	365 에스엠	-270	
이지바이오	350 초록밤	-26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30(금)	7/3(월)	7/4(화)	7/5(수)	7/6(목)
외국인	9,358.1	126.9	88.4	-38.5	107.6	-193.6	-6.1	219.0
기관계	-8,722.9	-461.9	-581.8	-120.0	-84.5	104.1	-81.6	-399.8
(투신)	-3,967.2	-90.3	15.7	106.0	-9.3	-78.5	28.3	-30.8
(연기금)	516.8	32.9	82.5	49.6	-22.7	38.3	-0.7	18.0
(은행)	-548.6	-15.9	-9.4	6.5	-7.5	-5.8	-6.7	4.2
(보험)	-1,389.8	4.8	10.6	5.8	-2.5	-5.0	15.8	-3.5
개인	-3,953.9	143.4	252.0	108.6	-84.3	44.7	54.0	129.1
기타	3,318.6	191.6	241.5	49.9	61.2	44.8	33.7	51.8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6/29(목)	6/30(금)	7/3(월)	7/4(화)	7/5(수)
KOSPI	1,961.3	2,026.5	2,387.8	2,395.7	2,391.8	2,394.5	2,380.5	2,388.4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3,702.7	24,536.0	23,871.9	24,693.1	24,681.7	23,702.7
(증감액)	6,853.1	58.8	948.3	-892.5	-664.1	821.2	-11.4	-979.0
(회전율)	28.8	24.8	31.5	33.5	32.5	30.6	32.4	31.5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1,251.2	-702.7	-454.6	712.8	182.5	-920.5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141.0	4,171.1	4,156.2	4,154.3	4,155.6	4,141.0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384.1	4,381.5	4,391.5	4,388.1	4,385.2	4,384.1
미수금	151.0	125.6	145.8	152.1	173.5	141.3	124.6	145.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6/28(수)	6/29(목)	6/30(금)	7/3(월)	7/4(화)
전체주식형	68,886	-6,462	-195	146	168	361	-54	-141
(ex.ETF)		-5,180	-30	-35	95	-9	50	-80
국내주식형	51,563	-6,092	-211	138	159	355	-61	-149
(ex.ETF)		-4,788	-46	-43	86	-15	43	-88
해외주식형	17,323	-370	15	8	9	6	8	8
(ex.ETF)		-392	15	8	9	6	8	8
주식혼합형	8,389	270	18	8	6	5	-1	19
채권혼합형	21,773	-4,481	-16	-23	-76	21	-24	8
채권형	105,122	2,714	-19	712	32	697	34	-52
MMF	119,429	12,261	6,143	-2,886	-1,607	-5,727	1,283	4,86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30(금)	7/3(월)	7/4(화)	7/5(수)	7/6(목)
한국	8,152	109	76	-34	94	-168	-5	189
대만	8,492	-228	-214	13	-11	-144	-73	-
인도	8,189	-317	-92	225	-138	-179	-	-
인도네시아	1,228	-72	-72	-	36	-86	-22	-
태국	381	-13	-17	-5	12	-24	-1	-
남아공	-3,980	155	295	140	95	-9	70	-
필리핀	396	-12	8	21	5	-10	-8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6/30(금)	7/3(월)	7/4(화)	7/5(수)	7/6(목)
회사채 (AA-)	2.14	2.24	2.26	2.28	2.29	2.29
회사채 (BBB-)	8.27	8.48	8.50	8.52	8.53	8.53
국고채 (3년)	1.64	1.69	1.72	1.74	1.75	1.75
국고채 (5년)	1.80	1.91	1.92	1.95	1.96	1.97
국고채 (10년)	2.08	2.21	2.24	2.27	2.28	2.28
미 국채 (10년)	2.56	2.30	2.35	2.35	2.32	-
일 국채 (10년)	0.06	0.09	0.09	0.08	0.09	-
원/달러	1,210.50	1,144.10	1,146.90	1,150.60	1,150.50	1,157.40
원/100엔	1,030.04	1,017.13	1,013.16	1,016.35	1,016.43	1,022.53
엔/달러	117.52	112.09	113.20	113.21	113.19	113.19
달러/유로	1.05	1.14	1.14	1.13	1.13	1.13
DDR3 1Gb (1333MHz)	1.15	1.21	1.21	1.21	1.21	-
DDR3 2Gb (1333MHz)	1.50	1.69	1.69	1.69	1.69	-
NAND Flash 16Gb (MLC)	1.87	2.92	2.92	2.82	2.92	-
CRB 지수	193.97	176.55	177.96	177.96	175.44	-
LME 지수	2,663.2	2,853.5	2,862.9	2,845.6	2,853.5	-
BDI	961	901	882	871	901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46.04	47.07	47.07	45.13	-
금 (달러/온스)	1,131.35	1,242.25	1,229.25	1,223.75	1,220.3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6	27	28	29	30
美> 5월 내구재주문 (-1.1%, -0.6%, -0.8%)	美>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118.9, 116.0, 117.9)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6.2%, n/a, 0.6%) 5월 도매재고 MoM (0.2%, 0.2%, -0.5%) 유럽> 5월 M3 통화공급 YoY (5.0%, 5.0%, 4.9%)	韓> 한미 정상회담(~30일) 美> 1Q GDP 연간화 QoQ (1.4%, 1.2%, 1.2%)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4, 240, 242) 유럽> 6월 소비자기대지수 (-1.3, -1.3, -1.3)	美> 5월 개인소득 (0.4%, 0.3%, 0.4%) 6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95.1, 94.5, 94.5) 중국> 6월 제조업 PMI (51.7, 51.0, 51.2) 日> 5월 실업률 (3.1%, 2.8%, 2.8%) 5월 유효구인배율 (1.49, 1.48, 1.48) 5월 전국 CPI YoY (0.4%, 0.5%, 0.4%) 5월 광공업생산 (-3.3%, -3.0%, 4.0%)
3	4	5	6	7
韓> 6월 수출 YoY(1일) (13.7%, 16.2%, 13.4%) 6월 닛케이 제조업 PMI (50.1, n/a, 49.2) 美> 6월 마켓 제조업 PMI (52.0, 52.1, 52.1) 5월 건설지출 MoM (0.0%, 0.3%, -1.4%) 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50.4, 49.8, 49.6) 日> 6월 닛케이 제조업 PMI (52.4, n/a, 52.0) 유럽> 6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7.4, 57.3, 57.3)	韓> 6월 CPI YoY (1.9%, 2.1%, 2.0%)	美> FOMC 의사록 공개 5월 내구재 주문 (-0.8%, -0.8%, -1.1%) 5월 제조업수주 (-0.8%, -0.5%, -0.2%)	美> 연준 Powell 연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244) 5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6.2, -47.6) 6월 ADP취업자 변동(천건) (n/a, 178, 253)	美> 6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180, 138) 6월 실업률 (n/a, n/a, 4.3%)
10	11	12	13	14
中> 6월 CPI YoY (n/a, 1.5%, 1.5%) 6월 PPI YoY (n/a, 5.3%, 5.5%)	美> 5월 도매재고 MoM (n/a, n/a, 0.3%)	韓> 6월 실업률 SA (n/a, n/a, 3.6%) 美> 연준 베이직북 공개 엘런의장 하원 증언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日> 6월 PPI YoY (n/a, n/a, 2.1%) 5월 3차 산업지수 MoM (n/a, n/a, 1.2%)	韓>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6월 PPI 최종수요 MoM (n/a, -0.1%, 0.0%)	美> 6월 CPI YoY (n/a, n/a, 1.9%) 6월 소매판매 MoM (n/a, 0.2%, -0.3%) 6월 광공업생산 MoM (n/a, 0.3%, 0.0%)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n/a) 日> 5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3.3%)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